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빛났다

21~2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일원서 사전예약자 대상 체험행사 진행

임실군표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임실군과 (농)임실엔양념(주), 임실엔양념마를사압단이 주최·주관하는 김장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체험행사는 지난 24일간 진행된 사전 예약 접수 기간 중 직접 와서 김장을 담가 가길 희망하는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는 총 300명, 900여 명이 참여한다.

개막행사는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및 의원, 박정규 도의원, 임실경찰서장과 임실교육장,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축협장, 산림조합장, 각급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체험행사 참여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체험행사를 신청한 참여자들은 이날 김장을 편하듯 담글 수 있도록 준비한 테이블 등에서 신청한 만큼 김장을 버무려 가져온 김치통에 담아가면 된다.

군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노래자랑, 경품 이벤트와 함께 수유를



임실군표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결들여 막 담근 김치를 맛볼 수 있는 음식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HACCP 시설이 갖춰진 고추 가공공장에서 엄선한 임실 고추를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활용하여 세계김치연구소의 공인된 레시피로 양념을 생산하여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한 절임 배추와 양념 사전 예약에서 총 114톤(절임배추 82톤,

양념 32톤)에 6억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폭발적인 주문량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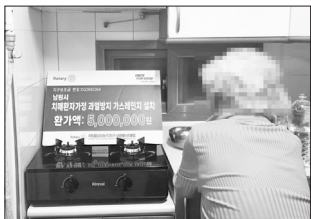
심 민 군수는 "청정 임실 지역의 신덕면에서 자란 우수한 배추와 최고의 자랑하는 임실 고추, 각종 채소, 재료들로 만들어진 양념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길 바란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최고의 김장 김치를 고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0만원봉사대가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 점검·수리, 이동발대방, 청소 등 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최경식 시장은 마을주민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왕정동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하고 형광등과 콘센트를 교체하는 현장봉사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게 지원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획득

순창군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순창군이 조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지난 9월 3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순창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심사했다.

인증 심사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 표준문서, △경영방침 및 목표·성과관리,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의 효과, △의사소통 및 피드백 후속조치, △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효과성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인증심사의 목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기획·문서화·기록 등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으로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또한 법규·규제사항 및 고객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순창군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조직의 방침과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ISO 45001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ISO 45001 인증은 순창군이 안전을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극 운영·개선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전 부서에 걸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고, 군정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푸드트럭 수익금 일부 기탁

남원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프 행사에 참여한 전국푸드트럭소상공인협회 소속 15개 업체가 제전에서 진행된 수익금의 일부인 20만원을 순창 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행사 기간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 푸드트럭 운영업체들이 "남원시민의

사람에 보답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탁식은 19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남원은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높은 참여로 축제 분위기가 활기찼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전개

순창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재난 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소방차량 통행 확보를 위해 19일, 관내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출동훈련과 캠페인을 집중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지휘차·펌프차·구급차·구조차·고가차 등 총 6대의 소방차와 소방공무원 20명이 참여했으며, 순창시장·순창공용터미널 등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실제 출동환경을 반영해 진행됐다. 군민에게 긴급차량 우선 통행의 필요성을 체감시키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겼다.

이날 소방서는 차량 경광등과 사이렌을 활용해 시속 30km/h 이하 저속패레이드를 실시하고, 선두 차량을 통



해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하는 방송을 송출하며 일반 차량의 양보운전을 유도했다.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불시 출동훈련을 병행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방통로 확보 지도점검을 시행해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을 확인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순창시장부터 순창교육지원청 구간에서 의용소방대원 41명이 함께 참여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 캠페인이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등



남원소방서, 생몰테러 대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간담회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8일, 보건소,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생몰테러 대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몰테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 △생몰테러 의심사건 신고 및 초동 대응 절차 △소방·보건·경찰 등 기관별 역할 분담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협업체계 개선 등 다양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보건소 생몰테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기호흡기와 화학보호복 착용 요령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해 실제 대응능력 향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임실군이 관촌면 도봉리, 병암리, 솔치리, 용산리에 소재한 1,307필지, 394,914.7㎡의 토지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11월 19일부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국책사업이다.

군은 주민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신청하여 재조사 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 향상과 함께 토지이용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